

북한 1등 배우자감, 男 ‘군당지도원’·女 ‘현대가재미’

<군 제대·당원·지식·도시 거주·돈>

<현금·대출·가공·재능·미인>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 (12)
 — 제2부 탈북민에게 듣는 북한

② 사랑과 전쟁

결혼
 男 18세·女 17세면 본인 의사대로
 국가기념일엔 결혼식 못 올려
 신혼여행 대신 신랑집서 3일

이혼
 이혼 사유 1위는 진단서 있는 ‘불임’
 바람·불륜 증명 못하면 이혼 못해
 ‘무능한 남편’에 여성 경제활동 늘어

북한은 70~80년대 남한 사회와 닮았다. 가난했고, 독재가 횡행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두, 술에 취해 사는 남편, 그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 서울로 돈 벌러 간 누이... 이는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먹고 살기 힘든 사회경제적 모순 때문이었다. 북한도 지금 이같은 모습에 빠져있다.

◇돈 많고 똑똑하고 예뻐야 1등 신랑·신부감=북한에서는 결혼을 ‘붉은 혁명 가정의 탄생’이라고 한다. 이때문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우자의 출신 성분이다. 토대를 보는 것이다. 신부 집안의 토대가 나쁘면 신랑이 승진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중매결혼이 많은 이유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연애결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영남씨는 “북한에서도 (연애) 할 것은 다 한다. 다만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낮에 손잡고 다니거나 포옹하거나 키스하지는 않지만, 어두워지면 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남자 18세, 여자 17세가 되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혼할 수 있다. 남한 20세보다 더 빠르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는 여자 나이 25세 이상이면 노처녀다. 남자는 27~28세를 결혼적령기라고 한다. 북한도 갈수록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과 군대 때문이란다. 그래도 여자는 30살 이전, 남자는 30대 초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에서 1등 신랑감은 ‘군당지도원’과 ‘열대매기’다. ‘군당지도원’에서 ‘군’은 군 제대, ‘당’은 당원, ‘지’는 지식, ‘도’는 도시거주, ‘원’ 돈을 말한다. ‘열대매기’는 ‘열’은 열렬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 ‘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매’는 매달리는 말로 당증을 뜻하고, ‘기’ 전자제품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공통적으로 똑똑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1등 신부감은 ‘현대가재미’다. ‘현금’이 많고, ‘대학’을 졸업했으며, ‘가공’이 좋고, 재능있고, 아름다운 여성을 뜻한다. 예쁜데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여자가 좋단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혼수품으로 ‘5장6기’가 있다. ‘5장’은 옷장·이불장·찬장·신발장·책장을 말하고, ‘6기’는 텔레비전·세탁기·녹음기·냉동기·냉장기·선풍기를 말한다.

결혼식은 주로 소속 기관의 회의실, 마을의 공공회관, 신랑·신부의 가정집에서 이뤄진다. 결혼 시즌은 봄과 가을이다. 하지만 1월1일(설), 2월16일(김정일 생일), 4월15일(김일성 생일), 9월9일(국경절), 10월10일(노동당 창건일)에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 북한 최대 명절로 결혼식과 같은 개인행사는 금지되어 있다.

북한에는 신혼여행이 없다. 보통 결혼을 하면 신랑집에서 3일간 지내고, 친정으로 가는 게 신혼여행이다. 이



지난 6일 평양에서 결혼식을 마친 한쌍의 부부가 하객들과 함께 5월1일(능라도) 경기장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를 ‘첫날들이’라고 부른다. 첫날밤을 보낸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게 공수이라고 한다.

탈북 남성들은 대체로 북한 여성이 남한 여성보다 착하다고 말한다. 목포에 사는 탈북민 마진우씨는 “북한 여성은 봉인돼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감춰져 있어 때묻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북한 부부 이혼사유 1위는? =북한은 이혼이 쉽지 않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으로도 이혼은 쉽지 않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혼 사유 1위는 ‘불임’이라고 한다. 불임은 증명이 쉽다.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진단서가 합리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에는 진단서가 없다. 이런 이유로 상담하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참고 살으라고 한단다. 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도와 과를 같이 한다.

부부싸움 1순위로서는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고난의 행군’이 부부싸움을 더욱 부추겼다. 배급이 끊기자 남성은 무능력해졌고, 가정의 지위는 곤두박질쳤다.

북한 사람은 생명이 2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 생명’과 당과 수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보다는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이 탓에 남자는 아무런 보수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육체적 생명은 결국 아내 몫이 됐다. 결국 아내는 장마당으로 내몰렸다. 장마당 활동은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줬다. 배급이 끊긴 남편은 무능했고, 장사를 하는 아내는 유능했다. 남편은 술독에 빠졌다.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 가정폭력이 일상이 됐다.

인민학교 교사 출신의 탈북여성 안수진씨는 “북한에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모든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고 했다. 아이들조차 돌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부당함에도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이 참고 사는 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했다.

북한에는 합의 이혼이 없다. 오로지 재판에 의한 이혼만 가능하다.

북한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출신성분이 나쁜 것으로 판명’이 29%로 가장 많다. 이어 ‘신념·가치관(당성)의 불일치’가 21%다. ‘바람을 피울때’(19%), ‘애정·성관계 불만족’(11%), ‘폭력을 쓸때’(10%), ‘자녀가 없을 때’(9%)가 뒤를 이었다. 개인적 사유보다는 신분이나 출신 성분 등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대의 부정부패나 가족 학대, 성분의 문제 반혁명성으로 인한 사유는 쉽게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만 고부간의 갈등 문제 등 가족 문제 사유는 이혼 판결이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이혼을 급증하는 이유가 ‘탈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는 대부분 탈북하기 전에 이혼부터 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연대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혼이 쉽지 않으니 불임이나 외도 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법원, 탈북민 위한 재판절차 안내 책자 발간

〈사례〉 A씨는 탈북 여성 B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에게는 함께 북한을 탈출한 미성년 아들 C군이 있다. A씨는 C군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설〉 A씨가 C군을 입양하면 된다. C군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원의 미성년자 입양 허가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사례〉 A씨는 2007년 어머니 B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서 살았다. B씨는 2015년 12월31일 사망했다. 정성없이 장례를 치른 후 살피보니 B씨가 남긴 재산이 없어 잊고 지냈다. 그런데 6개월 후 C씨가 나타나더니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

〈해설〉 A씨는 B씨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받기 때문에 C씨에게 2000만원을 갚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A씨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갚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해야만 2000만원을 갚지 않을 수 있다.

탈북민 민사·형사·가사 재판 쉽게 풀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소송별 재판절차, 법률용어 등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다. 기존에도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사법제도 관련 자료들은 있었지만, 법원이 직접 안내서를 만든 건 처음이다.

책은 크게 소송 유형을 민사·가사·형사로 구분해 소송별 법률 개념과 재판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민사재판 소개를 보면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방법, 법정에서 판사와 원고·피고석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까지 재판절차가 쉽게 풀이돼 있다.

가사재판에서는 탈북민의 이혼에 대한 특례규정을 비롯해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는 합의이혼에 관해서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차이 등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특히 북한과 큰 차이가 나는 형사재판과 관련한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더라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수사기관에서 억지 자백을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북한과의 차이점으로 들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안내했다.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조언도 담겼다. 이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법률용어 ‘담오랑비’는 ‘횡령’,

‘벌리기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등 남북 간 차이가 있는 법률용어 설명도 나와 있다. 구매할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는 뜻의 북한말 ‘되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매’로 표기하며 어떤 일을 완성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작업봉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기관을 지정하는 용어 역시 북한의 ‘재판소’는 남한에서 ‘법원’, ‘검찰소’는 ‘검찰청’으로 표기하고,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분을 뜻하는 ‘피심자’, ‘피소자’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또 국선변호제도, 각종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다양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대표적인 탈북민 소송지원은 전화·인터넷 예약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이다. 대한법률구조협회는 전화상담을 통해 탈북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전용 사이버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 예약을 하면 직접 변호사와 만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책자는 법원 내에서 통일법제도와 북한법제를 연구하는 법관들의 모임인 ‘통일사법정책연구관’이 지난해 6월부터 연구한 결과의 산물이다. 연구관은 북한이탈주민 3명과 북한재민전문상담사 소속 변호사,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5차례의 검토회의, 전문가 간담회, 자문·검수를 거쳐 책자를 완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탈북 여성, 연령대 따라 몸값 매겨져”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토론회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토론회’에서 탈북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몸값이 매겨진다는 증언이 나왔다.

2008년 탈북한 이소연 한국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남성들에게 팔리고 있다”며 “20대 여성은 미화로 4000달러(약 452만원), 40대 여성은 2000달러(226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들 여성이 대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탈북했지만, 늘 언제 공안에 체포돼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포함한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3명과 북한자유연합 등 인권단체 대표들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